석유화학 · 정유도 기후변화협약 공동대응

정부와 산업계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기후변화협약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2월13일 KOEX에서 산업계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협력 합의서에 조인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협의창구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협의회는 산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협회 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경련 전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부, 10개 업종대표, 경제단체,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존 업종별 대책반과 함께 각종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 지원정책을 발굴·협의하고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국제적으로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요구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간 정책협의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2006년 하반기 업종별 대책 점검회의에서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07/02/13>